불교문학이란 불교를 위한 문학인가, 불교인에 의한 문학인가. 꼭 스님이 등장하고 불교적인 어휘가 들어가야만 불교문학으로 간주되는가.

총 1억3천만원이라는 획기적인 고료를 걸고 실시하는 불교문학현상공모 마감이 앞으로 꼭 3개월이 남았다(공모기간 10월말까지, 본지 68호 13면보도). 많은 기성과 신인작가들이 이번 현상공모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교문학에 대한 개념정리는 아직 생소한 편. 이번 공모를 통해 훌륭한 불교문학작품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문학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산사에 마련된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산사는 원주 치악산 구룡사. 오는 8월 9~10일 양일간 펼쳐지는 '산사에서의 불교문학과 문학동호인의 만남'은 불교문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을 모은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고은씨(불교문학현상공모위원장)가 '깨달음과 문학'이란 주제를 갖고 기조 발제를 하고 최원식(창작과비평사 주간) 김성동(작가) 도정일(평론가, 경희대 교수)씨가 각각 불교문학 전반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소설가 이문구씨가 초청 토론자로 참가하며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고은씨

◇최원식씨

◇김성동씨

산사서 만나는 깨달음과 문학

불교문학인 한자리 모인다

8월9·10일 원주 구룡사

고은·최원식씨등 동참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기획실장 현응스님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8월 8일까지 선착순 60명을 접수한다.

문의 (02)737-9684 〈경〉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염색 기법의 하나인 쪽염색에 관한 실습을 겸한 강좌가 8월1~3일 열린다. 사진은 성파스님이 쪽에서 염료를 추출하기 위해 옹기에 넣는 모습.

통도사 서운암서 '쪽물염색' 강좌여는 성파스님

紺紙 6백년만에 재현

8월 1일~3일 섬유전문가등 70여명 초청

쪽베기·염료추출·발효등 염색 실습강의

전통염색기법의 하나인 쪽(藍·마디풀의 일종)염색에 관한 문화강좌가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다. 성파스님(58·통도사 서운암 주지)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염색연구가, 미술 및 섬유계통의 교수 등 70여명의 관계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서운암에서 전통염색 문화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쪽베기, 염료추출, 발효 등 염색실습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성파스님은 6백년만에 재현해낸 감지(紺紙)도 공개할 예정. 한지에 여러번 쪽물을 들인 감지는 사경을 하거나 탱화를 그릴 때 사용되던 신비의 종이로 알려져 있다.

"쪽물염색을 하면 좀이 쓸 지 않고 변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파스님은 "짙게 물들이면 가을하늘(쪽빛)색이 나고 옅게 물들이면 고려청자의 비취색이 난다"고 덧붙인다. 특히 옛날에는 쪽의 독특한 약효로 인해 벌레가 생기지 않고 뱀이 근처에 오지않아 군복염색에도 많이 사용됐다고. 쪽의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감지는 불생불멸하는 불법의 진리를 표현하는데 안성마춤이었다.

스님이 감지를 재현한 것은 불과 5년전. 쪽물염색은 삼국때부터 쭉 있어 왔으나 주로 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지 염색은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맥이 끊어졌었다.

스님이 쪽염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경공부를 하다 우연히 금니사경에 뜻을 두면서부터다. 금니사경을 하자면 감지가 있어야 했고 감지를 만들자니 쪽염색을 알아야 했다. 스님은 쪽연구를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쪽재배단지를 찾아다녔고 중국 일본 등 쪽이 있는 곳이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갔다고 한다.

서운암 야산을 개간해서 쪽밭을 일구기도 한 스님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등 관련문헌도 샅샅이 뒤졌다.

김지애교수(58·효성가톨릭대 미대 전통공예과)와 함께 한국천연염색보존연구회도 만들어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 스님의 기법은 쪽염색전문가인 최차주씨(작고)와 부산의 이점수할머니(80)의 고증을 받은 것. 또한 3~4월에 심어 7~8월에 거두어 들인 쪽잎을 물에 넣은 다음 나뭇가지 등을 태운 잿가루를 넣어 발효시켜 최종염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불교미술 관계자와 섬유전문가들에게 차례로 보인 결과 '완벽한 감지'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성파스님은 "감지재현의 전과정을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 전통생활문화 재현을 위해 노력할 작정"이라고 밝힌다.

서운암=이윤호 기자

불심시심 〈58〉

흐림 갬 없다

珠爲臺殿玉爲林 구슬로 전각 짓고 옥은 숲 이루니
(주위대전옥위림)
人是純陽地是金 사람은 순수한 양기요, 땅은 모두 황금
(인시순양지시금)
華雨長飛無晝夜 꽃비가 길이 날아 밤과 낮이 없으니
(화우장비무주야)
風雨那復屢晴陰 비바람 어찌 있어 맑음 흐림 있으랴
(풍우나부속청음)
池中菡萏分光色 연못의 연꽃 색깔 각기 달리하고
(지중함담분광색)
樹異頻伽奏法音 숲속의 가릉빈가새 진리 음악 알리네
(수리빈가주법음)
淨土十方雖勿量 서방의 정토 비록 한량 없지만
(정토시방수물량)
彌陀誓願獨弘深 미타의 서원이 더 넓고 깊다
(미타서원독홍심)

백암선사의 정토찬의 일부이다. 정토의 궁전은 모든 것이 백옥으로 장식되었다. 전각의 옥일뿐만 아니라, 모든 숲 자체가 옥이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순수한 양지에 사는 사람들 뿐이고 국토의 전부가 황금의 귀함 뿐이다.

밤과 낮이 없으니 흐리거나 갬이 있을 수도 없다. 흐림 갬이 없으니 구름 바람이 있을 리도 없다. 이것이 정토의 세계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빈가는 '迦陵頻伽'로 설산에 살면서 오묘한 소리를 내는 희귀한 새이다. 이 숲에는 이러한 묘음의 새울음만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공간이다. 거기에 노닐 수 있다 함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이 무한 공간의 시방 정토보다도 더 넓은 아미타불의 서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서원이 유독 넓고 깊었다 한 이 시의 결구는 바로 이 정토에 가게 되는 수혜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8번째 수까지는 이렇듯 정토의 아름다움을 여실하게 찬양하고 있는 시들이다.

그러하니 이 정토에 태어나는 이는 이 세상에서의 지극한 선행이 아니고서야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 스스로 귀의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십만리의 여정도 순식간에 이를 수 있다(自家堅固歸心切 十萬餘程一息至)"라 하였듯이 순식간에 이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자신의 염원정도에 있으니 항시 이 염원을 간직함이 귀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캐나다서 영산재 첫공연

8월9일 토론토 구해·일운스님등 6명 참가

우리 불교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영산재(무형문화재 제50호)가 캐나다로 해외공연을 떠난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가 주최하고 카나다 중앙일보사와 캐나다무용협회가 후원해 오는 8월9일 토론토시 하보드 칼리지엣 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구해(무형문화재 50호 준보유자) 일운(〃 전수조교) 고산(〃이수자) 법현(〃이수자) 동성 도경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6명이 참가한다.

지난 87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유럽과 동남아를 순회공연한 이후 영산재가 북미지역에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소식

혜천스님 판화전
8월20일까지 롯데월드

고려대장경 변상도를 주로 판각하는 류혜천스님(손모음선원장)의 판화전이 오는 8월 20일까지 서울 롯데월드 민속관 갤러리 3층에서 열리고 있다. 양 음판화라는 독보적인 판화영역을 개척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혜천스님의 3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관세음보살도 후불도 등 1백여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02)411-4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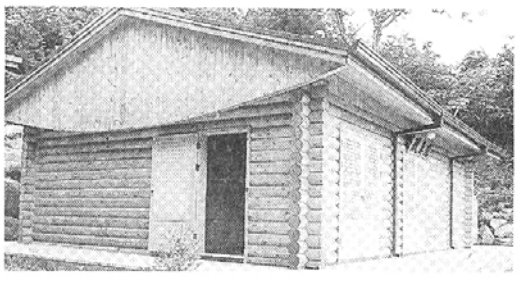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공예작품 상설전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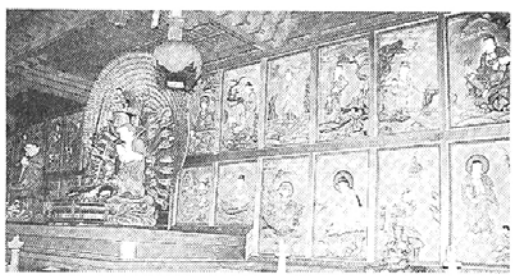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과 전수자들이 만든 공예품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이 지난 25일 강남구 역삼동(선릉맞은편)에서 개관됐다.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회장 이칠용)가 마련한 상설전시관에는 발우등 옻칠공예 화각공예 민속악기 옹기 금속공예 전통공예품과 각종 문화상품이 전시 판매된다. 개관시간은 오전 9시 30분~저녁 7시30분. (02)501-0087

「만해새얼」 창간호 발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상임대표 김재홍)가 발간하는 계간 〈만해새얼〉 창간호가 나왔다. 창간호에는 △창간축하휘호 △창간인사말 △오늘의 만해를 생각한다 △만해새얼시단 △만해발자취를 따라 △내가 좋아하는 만해시 △만해의 불교사상 △한용운의 민중불교 △한용운 전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02)723-5719


◇통나무를 원형그대로 이용해 못을 안쓰고 짜 맞춰 자연미를 살렸다.


◇후불탱화 대신 법당 벽을 가득채운 관세음보살 32 응신도 부조.

양평 법화사에 '통나무법당'

후불탱 대신 관세음보살 32응신부조

등글등글한 통나무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자연의 멋을 한껏 살린 법당이 최근 선을 보여 화제다. 더구나 이 법당안에는 교계에서는 드물게 후불탱화 대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조각한 부조를 봉안해 이색적인 불교건축의 장엄미를 보여주고 있다. 화제의 사찰은 경기도 양평 법화사(주지 현관).

법화사는 원통보전 응진전 삼성각 등 세 당우를 모두 통나무로 지었다. 원형그대로의 통나무를 켜지않고 쌓아 올려 못을 전혀 사용 안하고 나무끼리 결구해 맞추었다. 또한 나무의 원래 색과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 단청을 안하고 나무기름을 칠해 은은한 멋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신도들이 통나무의 둥글둥글한 모습을 보며 원만자비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우주만유 원융무애한 불법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는 현관스님은 신도들이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함을 느낀다고 말할 때 무척 흐뭇하다고 전한다.

법당 안에는 후불탱화대신 관세음보살의 32응신도를 부조로 봉안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갖가지 모습으로 화현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부드러운 선과 색으로 처리됐다. 조각은 허길룡씨(동국불교미술인회장). 〈숙〉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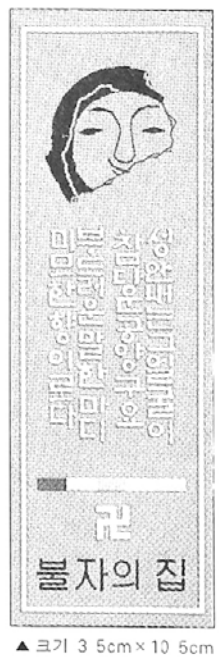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6cm×7.5cm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3.5cm×10.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